광주시장 출마 현역 국회의원들 잇단 여론조사 왜

# 주민 의견수렴? 출마 명분쌓기?

## 지역정가선 "인지도 높이기 선거 전략" 시각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광주시장 출마에 대한 주민의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앞다퉈 벌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들은 물론 2년이나 국회의원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장으로 진로를 바꾸려면 주민의견부터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시장 출마 지지 여부를 묻는 주민 여론조사의 물꼬는 튼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시장 출마에 나선다는 것은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어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을 대상으로 광주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설문투표를 벌였다.

설문 내용은 2항목으로, 광주시장 출마 여부와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선거법 위반 소지로 설문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1천 명 이상이 설문 투표에 참여해 이 중 90% 이상이 '광주시장에 출마를 해야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또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만 19세 이상 남구 주민 2천2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1%포인트)를 한 결과 66.4%가 출마에 동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러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오는 18일 광주시장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 을)도 출마 선언에 앞서 이틀간 광산구민을 대상으로 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 의원은 당시 출마 회견에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지역 주민에게 광주시장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결과, 80%가 넘는 주민이 저의 뜻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는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 갑)도 의정보고회를 통해 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진로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국회의원들의 해명에 대해 지역정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의정 생활 중도에 시장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유권자 의견을 묻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시장 출마를 위한 '명분 쌓기'나, 선거운동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에 대한 부담감 등을 여론조사를 통해 털어 버리겠다는 의도 뿐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가 13일 광주를 방문,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진보신당과 대통합하자"

## 강기갑 대표 공식 제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13일 진보세력간 대통합과 관련, "1월 중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물론 제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를 찾아가 공식 제의하고 회동을 갖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6.15 남북공동선언에 동의하고 시장주의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큰 집 짓기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보신당과의 정책.노선 차이에는 "의견 차이가 있다면 만나서 해결할 과제"라며 "지방선거 전 진보진영 대통합의 논의를 해야 하고,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도 선언이나 약속을 국민에게 드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범야권 정당사회단체의 반(反) MB연대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며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3곳 이상을 당선시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강 대표가 앞으로 제안 해오면 내용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양당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전 통합은 쉽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시민배심원제 담합·로비 차단 장치 필요"

■ 민주당 공천제도 개편 토론회

## "후보 공천 시민 관심 높아 '흥행' 도움될 것"

민주당이 6·2 지방선거에 도입하려는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보다 폭넓은 도입을 요구했다. 또 담합이나 로비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13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시민참여형 공천을 통해 투명한 후보공천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이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공천과정에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른바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무경합 지역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한 적용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호남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은 반드시 배심원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창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정당 내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돼 온 공천과정에 유권자의 선택권이 작용할 수 있도록 개혁한 점은 평가할 만 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뒤 "배심원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담합 및 후보자들의 로비의혹 등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원 상지대 교수는 "선택적으로 일부 지역을 배심원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자칫 '변화' 요구에 대한 상징적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 미리 노출되는 1천62명의 전문배심원단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며 "객관적인 배심원 선정과 흥행성·역동성 발굴, 연합정치(선거연합)과의 연계 검토 등 제도 실행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배심원단 200명이라는 적은 샘플 숫자가 가져올 수 있는 편견(bias)과 대표성 정의를 문제, 패널토론회 1회가 인물 품평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극복해야 한다"며 "제도를 통해 선출된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반MB연합에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은 "민심을 외면한 그동안의 밀실공천, 지각공천, 기득권·남성중심 공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도 축사에서 "이 제도는 2012년 정권을 되찾기 위한 혁신과 변화의 첫걸음"이라며 "정당 공천의 합리성과 대중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배심원에게 정당공천의 최종 선출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성,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대 목소리는 없이 찬성 목소리만 줄을 이어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비판을 받았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 초청한 인사들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따라서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반대하는 인사들을 초청하지 않은 이번 토론회는 홍보 행사에 불과하며 지도부의 공천 방침을 확정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란 지적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야권 지방선거 공조 적극 동참"

## "광주·전남서 지방의원 후보 낼 것"

### 광주 방문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는 13일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 야권의 지방선거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를 방문한 송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창조한국당은 창당 이후 중도개혁 노선을 일관되게 걸어왔다"며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막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서 민주당 등과 제안한 지방선거 연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창조한국당도 광주·전남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라며 "야권 공조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 후보를 공천할 수도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백년대계가 아니라, 정권이 끝나면 흐지부지될 삼년소계"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세종시 원안이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송대표는 이날 운정동 5·18 묘지를 참배한 뒤 박광태 광주시장과 면담하고 저녁에는 당원 간담회를 가졌다.

송대표는 14일 박준영 전남지사와 만난 뒤 상경할 예정이다.

송대표는 나주 출신으로 광주일고를 졸업했으며, 이탈리아 대사를 역임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문국현 전 대표가 의원직을 물러난뒤 지난해 11월부터 창조한국당 대표를 맡아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급 9급 공무원 OT관
2월1일 시작반 현재 수강예약 접수중
사대생 시험패턴 변화바람
외길십다. 독같은 공무원 대우. 채용인원과 시험기회가 많다.
임용고시 보다 교육행정직
>>>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
시대생을 위한 교육행정직 합격특강
9급 문제풀이
소방직
마감유의 현재 수강접수중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 234-0234